

경제

하나은행,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

입력 2020.05.22 / 1240호(p43~43)

- 중소기업 R&D 수행 기업 대상 1100억 원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
-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 겪는 R&D 사업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



중소기업, 소상공인을 위한 하나은행 'R&D 사업화 자금대출' 지원 절차



하나은행(은행장 지성규)은 5월 1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)과 함께 중소기업 연구개발(R&D)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'중소기업 R&D 사업화 전담은행'으로 선정한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R&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기술·신제품 사업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.

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R&D 수행 기업에게 하나은행은 총 1100억 원 한도로 업체당 5억 원 이내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새로 지원하고, 최대 1.83%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.

하나은행 관계자는 "하나은행은 중소기업 R&D 사업화 전담은행으로서 참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됐다"며 "앞으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
경영안정 특별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R&D 수행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원 한도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시로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다.

Copyright by **dongA.com** All rights reserved.